

# 2017학년도 논술전형 문제해설

## 인문사회계열 I - 문제해설

### 1.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 (1) 평가 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17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과 EBS 교재에 수록된 텍스트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각 제시문의 핵심 논지에 나타난 다양한 분야의 평가의 기준과 결과를 찾아내고 이 논지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② 문학 제시문을 읽고 인접 분야의 주제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종합적 독해력과, 제시문을 주어진 문맥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맥락적 사고력, ③ 주어진 제시문에서 반박할 부분을 찾아 다른 제시문들을 활용해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원결성 있게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2)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글을 종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성취기준 (2)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되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고등학교 문학 성취기준 (1)를 평가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제시된 네 개의 제시문에는 모두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 방식이 사용되거나 설명되어 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에서는 자체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진흙이라는 대상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것을 돌탑이라는 전체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관점에서 평가할 경우 가져져 있던 가치가 재발견된다는 주장이 나타나 있다. 제시문 (나)에는 경쟁 가설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 추리를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는 외양이나 직업이 아니라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끈공함 속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리)에는 작품 자체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그 작품을 해석하는 지적 행위기 미술 작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 결과 20세기 미술의 무한한 다원성이 발생한다는 단토의 미학 이론이 소개되고 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대상의 종류와 평가자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평가의 기준들과 그런 평가가 가져오는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해 내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시문에 나타난 평가의 대상은 무엇인지, 그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평가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내용을 완결된 형식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 2]** 이 문제는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 간의 대화 상황을 묘사한 글을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하고(고등학교 문학 성취기준 (1)) 그 내용을 인접 분야의 주제로 확장하여 관련성을 찾는 능력(고등학교 문학 성취기준 (4))을 측정하고자 출제되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하위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라)에 설명된 방식의 비평이 갖는 특성을 유추하여 서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20세기 미술 감상에 요구되는 자세를 제시문 (배)의 대화 상황에서 찾아 서술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접근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제시문 (마)에서 자동차에 대한 '나의 인식'이 새로운 경험과 상황을 접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제시문 (라)의 비평이 대상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 행위의 하나임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마)의 사례와 연결하여 비평이 가변성과 다원성을 지닐 수 있음을 유추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배)의 대화 속에서 역지사지의 자세, 편견을 버리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 넓은 맥락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찾아 이를 토대로 다원성과 가변성을 특성으로 하는 20세기 미술 작품 감상에 요구되는 태도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3]

이 문제는 주어진 글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할 부분을 찾아 비판할 수 있는지(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성취기준 (19)를 평가하고자 출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글의 맥락을 분석하여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고등학교 국어 성취기준 (20)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문 능력에 대한 평가 또한 이 문제의 출제 의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제시문 (아)의 설명과 제시문 (자)의 조카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문 (사)에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사)의 논지는 의견, 의욕, 욕구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재산, 평판, 권력과 같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아)의 중동구매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외적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작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시문 (지)에서 조카의 주장에 따르면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따라서 제시문 (사)의 논지는 제시문 (아)와 제시문 (지)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이처럼 본 문제의 평가 의도는 주어진 글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할 부분을 찾아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2.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문태준, 『돌탑과 잔돌』, 이관규 외,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2013(2016), 275~276쪽
- 제시문 (나): 윤종필 외,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2016, 90~91쪽.
- 제시문 (다): 박지원 「예덕선생전」,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6, 20쪽.
- 제시문 (라): 김성혜 외 『EBS 수능기출 플러스 국어영역 독서』, EBS, 2015, 196쪽.
- 제시문 (매): 나희덕 「물 비판내에 대하여」, 김윤식 외, 『문학』, 천재교육, 2016, 373~375쪽.
- 제시문 (배): 이윤기 「직선과 곡선」, 김중신 외,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EBS, 2016, 250~251쪽.
- 제시문 (사): 에피테토스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6, 144쪽.
- 제시문 (아): 이준구, 「36.5도 인간의 경제학」, 우한용 외 『국어』, 비상교육, 2016, 160~163쪽.
- 제시문 (자): 채만식, 「치숙」, 우한용 외, 『문학』, 비상교육, 2016, 20~25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비상교육, 2016) 교과서에 실린 「돌탑과 잔돌」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한 대상을 그것이 전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려져 있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해주는지 설명한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잔돌이 돌탑에서 큰 돌의 수평을 잡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세상에는 자θε로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생각이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사회에도 잔돌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는 『EBS 수능 특강 국어영역 독서』(2016)에 실린 가설 추리의 방법에 대한 설명문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가설 추리의 방법이 적용되는 과정과 그것이 갖는 효과를 설명한다. 가설 추리의 방법은 어떤 설명적 가설이 다른 경쟁 가설들에 대해서 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설명적 가설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저자는 가설 추리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라는 피스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방법이 과학 활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6)에 실린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화자인 선글자는 뽕을 저 나르는 일을 하는 엄행수에 대해서 그가 비록 불결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며 높이 평가한다. 선글자는 엄행수를 생각하면서 살 경우 곤궁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출세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지조 있는 선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시문 (라)**는 「EBS 수능기출 플러스 국어영역 독서(2015)에 실린 단토의 「미술종말론」에 대한 설명문이다. 단토의 이론은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면 미술작품이 될 수 있는 현대 미술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이 미술 작품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지체적으로 갖는 객관적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가해지는 해석적 행위에 의해 좌우된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미술과 관련해서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6)에 실린 나희덕의 「풀 비린내에 대하여」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처음 운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동차를 불안의 대상으로 느끼지만 이내 친숙함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고속 도로 운전 후 자동차 유리창과 범퍼에 엉겨 있는 무수한 풀벌레의 시체를 본 후 자동차를 살상의 기계로 새롭게 인지하게 된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는 수필이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EBS 인터넷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2016)에 실린 이윤기의 「직선과 곡선」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하 사장을 비난하는 「나에게 온사인 일모 선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자세,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수용하는 자세, 편견을 버리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려는 시각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2016) 교과서에 실린 에픽테토스의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의 일부이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행복과 윤리를 설명하는 여러 사상적 접근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의견, 의욕, 욕구와 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재산, 평판, 권력과 같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6) 교과서에 실린 이준구의 「36.5도 인간의 경제학」의 일부를 발췌한 글이며, 이 글은 「4. 올바른 문장, 그리고 독서」 단원에서 독서기 문제 해결적 사고과정이라는 특성을 이해시키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달 내림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중등구매가 유발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6) 교과서에 실린 채만식의 「차속」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1.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 단원에서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이해하고 작품의 다양한 맥락을 읽어내기 위한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숙부와 조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며, 숙부는 세상의 순리가 있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카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세상에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 3.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대상을 평가하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각 제시문에서 '평가의 기준'과 그 평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향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다양한 평가 기준과 그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가)에는 자체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잔물을 전체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바라본 결과, 간과하고 있었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사례가 나타나 있다. (나)에서는 하나의 가설이 다른 경쟁 가설들을 압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설 추리를 평가하고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다)에서 화자는 사람을 직업, 외모, 행색이 아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을 내재화한 결과 곤궁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리를 지키는 선비의 삶을 견지할 수 있게 된다. (라)에는 예술품의 내용, 형식, 재료 등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예술품을 해석하는 지적 행위가 미술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그 결과 현대 미술에서 발견되는 무한한 다양성이 발생한다는 단트의 이론이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평가에는 대상과 상황, 평가자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가치나 지식의 발견, 도덕적 성찰, 다양성 증진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65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비평'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서술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세기 미술을 감상할 때 요구되는 태도를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에는 새로운 상황과 경험을 접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나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초보 운전자로서 자동차에 불안을 느끼던 '나'는 점차 자동차를 감성적 기기로 인식하게 되지만 고속 도로 운전에서 풀벌레들을 해친 경험을 한 이후 생명을 해치는 기기로 바라보게 된다. 자동차에 대한 '나'의 인식이 새로운 경험과 상황에 따라 바뀌듯이, 미술 작품에 자격을 부여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지적 행위인 (라)의 비평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동일 대상에 대한 동일인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바)에서는 허 사장을 비난하는 화자에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배우고 수용하며 편견을 버리고 직선이 아닌 곡선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해석의 다양성, 가변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는 20세기 미술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작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고 수용하며 편견을 버리고 넓은 맥락을 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560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제시문 (아)의 설명과 제시문 (자)의 '조카의 주장'을 바탕으로 비판해 보시오. [20점, 400~420자]

(사)에 따르면 의견, 의욕, 욕구와 같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재산, 평판, 권력과 같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의 명확한 구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판매 전략에 의한 '달 내림 효과'로 중등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아)의 설명에 따르면, 욕구는 외적 조건의 변화를 통해 조작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언제나 우리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자)의 '조카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재산, 권력 등 세상의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결국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항상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의지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의지에 의해 성취 가능할 수 있다는 (아)와 (자)의 관점에서 (사)의 논지는 비판될 수 있다. (416자)

## 4. 채점 기준

### [문제 1] 40점 만점

####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핵심 논지에 나타난 '평가 기준과 평가의 결과'를 찾아 각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0~32점

- ① 제시문 (가): 전체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대상의 가치가 재발견된다.
- ② 제시문 (나): 다른 가설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기준으로 가설 추리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
- ③ 제시문 (다): 의로움을 지키는기의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 ④ 제시문 (라): 비평과 같은 작품에 기해지는 지적 행위를 기준으로 예술 작품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미술의 다원성이 발생한다.

-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의 내용만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 단, 참신한 분류법으로 지문의 차이를 뛰어 서술한 경우, +3점을 부여한다.

2) 네 개의 제시문에 나타난 평가 기준과 결과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8점): 0~8점

-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최대 3점 부여
-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하여 제시한 경우, 최대 5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평가기준과 결과를 각각 찾아 제시(32점): 4~32점	4개를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를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를 제시한 경우	9~16점
		1개를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3~8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한 경우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한 경우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사례에서 '나의 자동차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에 설명된 '비행'의 특성을 제대로 유추했는지 평가한다(20점): 6~20점 부여

① 제시문 (마)에서 '나의 인식 변화 과정' 파악(10점)

제시문 (마)에는 초보 운전자로서 자동차에 불안함을 느끼던 회자가 점차 자동차를 편안한 감성적 기계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고속도로 운전에서 불법리들을 해친 경험 이후 살상 기계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새로운 경험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됨을 파악한다.

② 제시문 (라)에 설명된 '비평'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시문 (마)의 사례를 토대로 비평의 다원성과 가변성 유추(10점)

제시문 (라)에 설명된 '비평'은 대상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해석 행위이다. 이러한 해석 행위는 제시문 (마)의 사례와 같이 상황과 경험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개인들 사이에서 비평의 다원성을 만들어 내고, 동일 대상에 대한 동일인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성을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한다.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나'의 인식 변화 과정을 적절히 제시한 경우, 최대 10점 부여
- 제시문 (마)의 사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비평'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최대 10점 부여

2) 제시문 (바)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다원성과 가변성을 갖는 20세기 미술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제시문 (바)를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20점): 6~20점

① 제시문 (바)의 핵심 내용 파악(10점)

제시문 (바)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화자에게 또 다른 화자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수용하며, 부분(직선)이 아닌 전체(곡선)를 보는 시각을 가질 것을 조언하고 있다.

② 제시문 (바)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20세기 미술 감상에 요구되는 태도 서술(10점)

다원성과 가변성을 갖는 20세기 미술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바)의 핵심 내용처럼 작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고 수용하며, 편견을 버리고 미술을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 제시문 (바)의 핵심 내용을 적절히 파악한 경우, 최대 10점 부여
- 20세기 미술의 다원성과 가변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제시문 (바)를 토대로 적절히 서술한 경우, 최대 1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사례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라)의 비평의 특성을 유추(20점): 6~20점	제시문 (마)에서 '나'의 인식 변화 과정을 적절히 파악한 경우	3~10점
		제시문 (마)의 사례를 통해 (라)에 설명된 비평의 특성을 유추하여 서술한 경우	3~10점
	② (바)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미술 감상에 요구되는 태도 서술(20점): 6~20점	제시문 (바)의 핵심 내용을 적절히 파악한 경우	3~10점
		20세기 미술의 다원성과 가변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술 감상 태도를 제시문 (바)를 토대로 서술한 경우	3~1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 점)

1) 제시문 (사)의 논지(세상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음)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4점): 2~4점

- 욕구, 의견, 의욕과 같이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재산, 평판, 권력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의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경우, 2~4점 부여

2) 제시문 (아)에서는 외적 기준으로 인한 '달 내림 효과'로부터 총동구매가 유발된다고 설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여 '욕구도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제시문 (사)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8점): 2~8점

- 총동구매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경우(제시문 (아)만 단순 요약), 2~4점 부여
- 제시문 (아)에서의 총동구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논지를 비판한 경우, 5~8점 부여

3) 제시문 (자)의 조카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산'이나 '권력'과 같이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제시문 (사)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8점): 2~8점

- 조카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만 제시하는 경우 (제시문 (자)만 요약), 2~4점
- 제시문 (자)에서의 조카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논지를 비판한 경우, 5~8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사)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4점): 2~4점	(사)의 논지(세상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의 명확한 구분이 있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술한 경우	2~4점
		(아)에서의 총동구매에 대한 설명만을 단순 기술한 경우	2~4점
	② (아)의 총동구매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의 논지를 비판(8점): 2~8점	(아)의 총동구매 '욕구'가 외적 요인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여 (사)의 논지를 비판한 경우	5~8점
		(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단순 기술한 경우	2~4점
	③ (자)의 조카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의 논지를 비판(8점): 2~8점	(자)의 부단히 노력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의 논지를 비판한 경우	5~8점